

# 겨울 무화과 재배 신기술로 고소득 창출

●전남도 3월 친환경농산물에 영암 '유기농 무화과'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갔던 영양 만점 '귀족 과일'  
위장 건강·항산화 작용...피부 탄력·노화 예방 도움

영암 '유기농 무화과'가 전남도 3월의 친환경농산물로 뽑혔다. 전남도는 20일 "영암 '유기농 무화과'를 3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암 삼호읍에서는 여름철 과일로만 생각됐던 무화과를 겨울철에 생산해 판매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무화과는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오를

만큼 귀해 과일 중의 귀족으로 꼽힌다. 클레오파트라도 즐겨 먹었다는 미인의 과일로도 널리 알려졌다. 위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또한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며 피부를 탄력있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효과가 있다.

무화과는 익을수록 촉감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우면서 당도가 높아진다. 이진성(59) 영암무화과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는 2006년부터 무화과 재배를 시작해 20년 동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무화과 친환경인증 재배면적은 1.1ha로 올해 유기농 실천 5년째다. 토양에 미강, 어분 등을 잘 배합해 유기 액비를 제조하고, 멀구슬나무 추출물을 활용해 친환경 병해충 방제자원으로 사용한다. 지난해 시설하우스 무화과 60여을 생산, 3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겨울 수확 시기는 보통 11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5월까지 이어져 겨울에도 무

화과를 생과로 즐길 수 있다. 생산한 무화과는 서울의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500g당 2만5천원에 판매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무화과 주년재배(연중개화 가능) 신기술 개발로 수확시기를 바뀌 겨울철에도 생산함으로써 친환경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 농가도 쉽게 친환경농업에 진입하도록 생산 시설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맛이 좋고 영양소가 풍부한 유기농 무화과는 영암군 친환경농업과(061-470-2375)를 통해 문의하면 구입할 수 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3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된 영암 유기농 무화과와 이진성 영암무화과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9일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해 광주 광산구와 목포가족센터에서 '학용품 나눔 행사'를 각각 진행했다. <농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 “다문화가정 아동 즐거운 학교생활 응원”

농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새학기 맞이 학용품 나눔

농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새학기를 맞아 지역의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응원했다. 20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새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가 광산구청에서 '다문화가정 학용품 나눔 행사'를 열어 학용품 140세트를 전달했다. 행사는 (새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가 주관하고 농협광주본부가 후원했으며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한재규(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장,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김진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20

여명이 참석했다. 같은날 전남지역에서도 나눔이 이어졌다. (새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전남지역본부)가 NH농협은행 전남본부와 함께 목포시 목포가족센터와 영암군 삼호종합복지센터를 찾아 학용품을 나눴다. 행사는 목포시와 영암군 소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농업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목포시·영암군 센터의 관계자들은 지원물품이 새 학기에 꼭 필요한 학용품들로 구성되어있고 귀여운 캐릭터로 꾸며져 있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지기자

(새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범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단체인 취약계층과 농업·농촌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재규 (새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장은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농협의 따뜻한 응원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와 농협광주본부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차상훈 (새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전남지역본부장은 "작게나마 주변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다"며 "전남지역본부는 전남 농촌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지기자

## 도, 농작업 편의 의자 '허리보호대 쪼그리' 보급 확대

근골격계 등 농부증 질환 예방  
올 지원 규모 4만개로 대폭 확대

쪼그려 앉아 일하는 농민들의 작업 부담을 해소해주는 편의 의자 일명 '쪼그리' 지원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전남도 등 각 시·군 지자체가 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해 '농작업용편의의자'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올해 6억원의 사업비(도비 1억6천만원)를 확보, 농작업 편의 의자 '쪼그리' 지원 규모를 지난해 2만개에서 4만개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농작업용편의의자 '허리보호대 쪼그리'는 허리보호대와 작업 의자가 일체형이어서 여성 농민 등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허리와 무릎 통증 등 '농부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편의 의자 '허리보호대 쪼그리'의 가장 큰 특징은 X자 교차 작용과 서라운드 벨트 꺾임의 특허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작업자가 앉았다 일어설 때를 반복하더라도 의자가 엉덩이에 고정돼, 농업인 등 구매자들로부터 착용 상태의 편리성과 안정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영세농과 고령, 여성농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도내 농업인 누구나 시·군 읍면 사무소를 통해 사업 기간 내 신청하면 농작업용 편의 의자 '쪼그리'를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농업인은 구입 비용의 90%를 보조 지원받아 개당 3천원만 내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농작업 능력 향상 차원에서 편의 의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으로부터 반응이 좋아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기자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허리보호대와 일체형인 농작업용 편의의자 '허리보호대 쪼그리' 착용 모습.

산림지킴이 '뚝딱 봉사단' 발족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일 "최근 영광군 물무산 행복숲에서 산림경영전담지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할 뚝딱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산림경영지도원들의 선도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익적 역할 강화와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발족했다. 이달부터 물무산 행복숲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관내 지역을 순회하며 산불 예방 캠페인,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지기자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8상담문의**

**062-449-4446**

